사랑해도 평안은 없는 이유

(스바냐 3장 1절~20절)

14.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랑해도 평안은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랑해도 평안은 없는 이유'
여러분께서는 사랑은 해도 평안이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실질적 경험을 토로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바로 알 때에 평안이 함께 하는 사랑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조용필 씨의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 그대의 흰 손 /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어라 /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라고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된 남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흰 손이 떠오르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이 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떠올릴 수밖에 없으니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바람되어 헤매는 가운데 마음속에서는 가로등 불빛처럼 애인에 대한 생각만이 떠오릅니다. 마음은 여전히 사로잡혀있는데 실제로는 만날 수가 없으니 괴롭고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는가'라는 후렴을 아홉 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치 사랑을 아름답다고 한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입니다.
나훈아 씨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라고 했습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잘 느껴지는 가사입니다.
또 독일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폴 에지드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샹송 가수 나나 무스쿠리가 불러서 크게 사랑 받았던 노래이고 조수미 같은 대형 가수들이 지금도 즐겨 부르는 애창곡입니다. 그러나 그 가사를 보면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한 순간에 불과하지만 / 사랑의 슬픔은 평생을 가네요 / 당신은 아름다운 실비를 위해 나를 버렸고 / 그녀는 새로운 애인을 찾아 당신을 떠나요"라고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본래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비단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랑하게 되면 밤낮으로 추구할 뿐 안식이 없습니다. 왜 이처럼 모든 종류의 사랑에는 평안과 안식 대신에 슬픔과 수고로움이 따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에 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워지길 바라며 사랑하지만 채워지지 않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실비에게로 간 이유는 나에게서 채워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비라는 여자와 같이 있으면 행여나 채워질까 싶어서 떠난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의 채워짐을 열심히 기대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해놓고도 배우자에 대해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배우자에게 기대했던 채워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 채움에 대한 기대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그치면 이혼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 채움을 기대하며 사랑을 지속한다면 함께 살아도 지옥이고 하루에 열두 번이라도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왜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세상 사랑에도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 속에는 내가 들어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평안이 없고 안절부절 불안했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평안이 없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주권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이 없으니 나의 삶 또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 일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삶이 전반적으로 평안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평안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선민들이여,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평안을 드리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스바냐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스바냐서의 말씀인지는 몰라도 복음성가를 통하여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사랑하기란 어렵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는 매일 밀고 당기고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것이 일상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도 사랑하는데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잠잠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으레 시끌벅적하고 울고불고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충족되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실 수 있게 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잠잠히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삶 또한 평안 가운데 잠잠히 진행될 수 있기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동안 안식을 누리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키우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돈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는가'라고 절규하는 조용필 씨의 노래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던 나훈아 씨의 노래나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에서 드러났던 슬픔이 전부 하나님께도 적용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경을 표현해보자면 "내가 세상에서 선민을 택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랑은 나의 눈물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안식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게 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것일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내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평안을 누리실 때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평안이 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왜 노심초사하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학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시지 못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악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누적되어서 결국 남 왕국 유다는 BC.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학함으로 선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패역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여럿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모르아"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산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번제단에 올리고 칼을 뺄 때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은 죽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인을 쳐주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모리아 산을 염두에 두고 반역을 뜻하는 모르아라는 단어를 통해 언어유희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아내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백세에 얻은 이 아들만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르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 8절을 보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질투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아가 의미하는 패역함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만을 좋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좋아함이란 가질 때에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하여 기뻐하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자녀 혹은 외모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방백과 재판장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들은 권력과 지위와 출세가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자 더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이웃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려하니 포학이 발생합니다. 포학이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이러한 패역하고 더럽고 포학함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공의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드러난 진실입니다. 아침마다 비추시는 공의란 곧 성전의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선민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었고, 더러워진 마음으로 이웃들과 관계함으로 포학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선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마음의 채움 거리로 여기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포학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는 공의란 멸절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아침마다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상번제입니다. 선민들을 매일 죽일 수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양을 죽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상번제야 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패역하고 더러워지고 포학을 행하게 된 마음이 어린양과 함께 번제단에서 죽었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공의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패역과 더러움과 포학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 하반부를 보면 선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17절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포로해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민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들에서 포학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없

는 일에서 기쁨을 추구함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포학을 행하게 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쁨을 요구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기쁨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포학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몸을 포함한 세상을 향할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현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죽음을 지속해나감으로써 배반과 패역을 뜻하는 모르아가 의미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관계에 구원과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평안이 없는 한 나의 삶의 평안 또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피해갈 수 없는 첫 번째 현실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삶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고 기뻐하시는 중에 안식 가운데 나를 마음껏 사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을 대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현실임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노심초사하지 않으시고 안식 가운데 사랑하심으로써 나의 삶 전반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기적과도 같은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